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오늘 저녁 '99홍해작전 발대식

기도와 말씀의 작전 ... 일곱가지 기도제목과 산상수훈으로

'99 홍해작전의 행진이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갖고 시작된다.

이번 홍해작전의 주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언론매체 특히 TV나 광고물에 의해 조절되는 세속 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의 규범을 상실한 오늘의 상황을 인지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신앙과 천국 윤리를 회복시키고 따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별새벽기도회는 7일(월) - 26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명 말씀과 기도의 작전으로도 불리는 홍해작전 기간 중에 성도들은 새 예배당 건축, 비전2020운동, 기독교교도소셜립,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난민청원운동,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의 목회자세미나, 농어촌 100교회운동, 서울교회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천국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생활 등 일곱가

지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기도를 한 후 말씀을 받게 된다.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이종윤 목사는 "20세기 마지막 해요 새 천년의 문턱에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받고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새로 오는 교역자



정윤돈 목사



고경선 목사

교역자 두 분이 새로 청빙됐다.

당회는 정윤돈 목사와 고경선 목사 등 부목사 두 분을 청빙하고 이번 주부터 담당 교구를 조정했다.

새로 오는 교역자의 프로필과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정윤돈 목사

1963년 생으로 최지혜 사모와의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서울대와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M. Div)·대학원(Th.M)을 졸업했다. 1995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안디옥교회, 광진교회, 메디슨한인장로교회, 소망교회, 주안장로교회, 염광제일교회에서 시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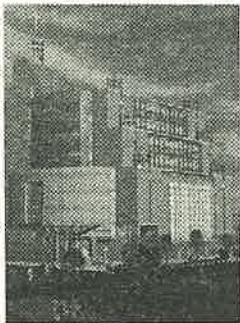
정 목사는 대학부와 3·4교구를 지도하게 된다.

▶ 고경선 목사

1964년 생으로 이은희 사모와의 사이에 1남이 있다. 건국대와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M. Div)·세계선교대학원(Th.M)을 졸업했다. 1997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아가페교회, 해방교회, 동천교회, 신림교회에서 시무했다.

고 목사는 청년부와 5·6·7·8교구를 지도하게 된다.

● 새 예배당 건축 현장 소식 ●



- 굴토공사 끝나 -

새예배당 굴토공사가 완료됐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그동안 진행되던 새예배당 굴토공사가 4일(금) 끝난데 이어 7일(월)엔 정화조와 기계실이 들어가는 부분의 바닥에 철골 시멘트 공사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토목공사는 용하건설(소장 오종웅)에서 담당해왔으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정성과 힘을 다해 공사에 임하여 한 건의 사고나 오차 없이 공사를 진행, 칭찬과 감사를 받았다.

이후부터는 골조공사와 전기·설비공사가 진행된다.

제 6대 장로 피택

이번생 · 민순구 · 윤찬오 · 이완형 · 임훈규 등 5명



이번생



민순구



윤찬오



이완형



임훈규

지난 주일에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5명이 장로로 피택되었다.

지난 달 2일 특별제직회를 통해 공천을 받은 14명의 후보 중 지난 주 공동의회 시 투표자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 제 6대 피택장로는 이번생, 민순구, 윤찬오, 이완형, 임훈규

등이다.

새로 선출된 장로는 6월 12일부터 6개월 간의 교육을 거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치른 뒤 오는 11월 우리 교회 설립 제 8주년 감사일과 추수감사절을 맞는 주일에 장립식을 갖게 된다.

이사야 강해

셉나의 멸망

이사야 22장 15 - 25절

남 유다를 망하게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지도자였던 션나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국고를 맡은 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리를 빼앗기자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김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타락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부끄러운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시 75:6-7).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높여주고 낮추는 것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 션나의 치욕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션나가 받을 치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션나의 그릇된 처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권익에 대한 원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친애급주의 옹거나 혹은 앗수르에 아첨한 자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책망한 내용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션나는 교만하였고 허영이 많았으며 또한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16절). 그는 이방인이고 천민 출신의 아람 사람으로 유다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거들먹거리며 후대까지 유다를 자기 성읍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그곳에 정교한 조각을 하며 견고한 집을 세웠습니다. 션나는 분수를 넘어 자기 욕심만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션나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션나가 지은 죄로 인하여 몰락할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19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날 날이 꺾으십니다(욥 40:11).

못이 삭아서 부러질 때는 그것에 의지했던 집이 떨어져 나가듯 션나의 지위가 그러했습니다(25절).

션나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좃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다가 공과 같이 던지움을 받았습니다(17-18절). 이것은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 엘리야김의 공직 임명

공직의 초기에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이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예언으로 받은 엘리야김은 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야김은 이와 같은 정실인사로 인해서 본인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션나를 보고 이르기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었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제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나...”



이종운 목사

라고 불리었습니다(20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청지기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도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 뜻만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이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21절). 이것은 나라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김의 옷을 갈아 입히고 띠를 띠게 한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하며 띠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의 띠는 홍색, 청색, 자색의 실로 만들어졌습니다(출 28:39, 39:29). 또한 띠는 힘으로 띠를 띤다(삼상 2:1), 기쁨으로 띠를 띤다(시 30:11), 진리로 띠를 띤다(렘 6:16)의 말씀과 같이 힘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이며 진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띠를 엘리야김에게 띠게 하고 옷을 갈아 입히며 그에게 아버지의 책임까지 주셨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김은 사랑과 지혜와 권위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축복은 절대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22절). 엘리야김의 위치는 견고했고 그는 그의 가문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23절).

션나는 심판을 받았고 엘리야김은 직분을 받았으나 감당하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도자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션나와 엘리야김을 종으로 세울 때에는 분명히 그를 향한 뜻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상의 골짜기며 비전이 있고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청지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그런 예루살렘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가 떠나면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은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좃아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므로 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9홍해작전에 붙어

홍해작전을 명받았다면...

김광신(장로, '99홍해작전 참모장)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지켜야 한다면 군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 민간인이면서 아직도 명령을 받고 살고 있다면 특이한 경우가 되는 법이다. 필연적으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이유는 민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이다.

'99홍해작전이 6월 6일부터 26일까지 새벽 5시에 서울교회에 모여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표어를 걸고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도록 떨어졌다.

어째서 이 명령이 발동되었으며 나는 열외로 남겠다고 발버둥치면 말릴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긴장을 시작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미국보다 나은 것이 없고 무신론으로 폭한 일본보다 못하면서 홍해작전은 강건너 불구경 게임이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금년 홍해작전은 독특하고 유별나고 도망가고 싶지 않게 진행된다. 무엇보다 흥분되는 것은 이종운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 새벽을 위하여 힘과 능을 다 쏟으시는 목사님의 표정에서 성공적인 홍해작전의 환상을 보게 된다.

새벽마다 대학부, 청년부 회원들이 정문에 도열하여 성도들의 작전 진입을 안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홍해작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개인기도를 받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소망부실에 모든 장로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중보기도를 해드리기로 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 카드에 20명의 중보기도자 명단을 기록하여

매일 한 사람씩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 손으로 오지 않기 위하여 새벽마다 자유롭게 헌금함에 헌금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부근에 사는 성도들이 제공하는 민박도 준비했다.

이번 홍해작전은 와야할 사람은 다 와야 한다. 병들었거나 지방에 있거나 군문에 또는 해외에 있다는 핑계를 빼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여 홍해를 갈라야 하고 중보기도에 동참해야 한다. 특별히 다락방별로 축호전도와 교회부근 전지역 전도를 통하여 500명 이상의 새가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름이 홍해작전이고 전교인 새벽을 깨우는 작전이다. 깊은 잠에 취해 있었던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겠으니 금년 홍해작전에는 100% 출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 한 사람의 기도까지를 포함한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옆집을 깨우고 앞집을 깨워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달려 오도록 하자.

홍해 앞에 무릎 꿇머

제오복(집사, 제 8교구)

소망이 되시며 모든 삶을 섬리하시는 하나님! 저의 심령이 가난하고 가장 비어 있을 때 주님은 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라일락 향기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더해 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에게 은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홍해작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

너게 하신 하나님.

멀리서도 새벽을 가르며 전화벨을 울리고 차량으로 수고하시는 다락방 식구들과 차량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간증하는 가운데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셨고, 주님을 닮은 모습의 성숙한 신자 되기를 바라는 저희들에게 충만한 감사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뒤로 물러서고 싶은 절그릇과 같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아시지요. 그럼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저희를 구휼히 여기시고 새벽 강단의 말씀의 강한 바람으로 저희의 자던 잠을

깨게 하사 잘못된 길로 가던 것 돌이키게 하시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새벽되게 하소서.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려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며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진을 섬기게 하시며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의 불씨가 불붙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디서 서명을 받을까요?

■...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신다면 북한 난민을 위해 서명을 받으실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주변 인물들을 찾아 지금 나서 보세요... ■

- ◆아파트 = 경비원 아저씨, 관리사무실 직원 가족, 그리고 입구에 간단한 서명대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요.
- ◆이웃집 = 앞집, 옆집, 아래집, 윗집... 방문 시간은 저녁 8시 경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이용하시면 효과 만점.
- ◆동네상가 = 슈퍼마켓, 약국, 비디오점, 공인증개소, 제과점, 만화방, 문방구, 식당, 서점, 수리센터...
- ◆학원 = 수영장, 입시학원, 피아노 학원, 헬스센터, 에어로빅센터, 테니스장, 볼링장,

- 유아원...
- ◆직장 = 직장 동료, 관련업체, 소속공장 및 창고, 직장 건물 내 상가, 옆 사무실 직원...
- ◆학교 = 친구, 선생님, 운동장에서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 조기 축구회 회원들, 이화학 교 친구들...
- ◆노상 =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주유소, 극장, 백화점, 야쿠르트아주머니...
- ◆기타 = 동산로 입구, 고속버스터미널, 친척 집 친구, 시장, 다방, 동사무소...

(자료제공 / 서울교회 서명운동본부)

“평안하고 성령충만한 교회를 위해”

매주 수요일부 예배 후 장로기도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매주 수요일부예배 후 특별기도회를 갖고 있다. 이 기도회는 교역자와 각 부서, 환자들과 교회행사들, 건축과 교회부흥, 일꾼과 성도 등 교회를 위해 뜨겁게 간구함으로써, 평안하고 성령충만한 교회로 이끄는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 교회가 장로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보내고 있다. 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와 국가를 위한 기도도 빠지지 않고 드려 한 굵교회에 대해서도 서울교회 장로들이 영적 봉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교회 UN청원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개교회로서는 처음, 8월까지 3단계 서명운동 전개

우리 교회 북한난민보호UN청원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개교회로서는 처음으로 3일(목) 오후 8시 서울교회 예배당 2층에서 개최됐다.

우리 교회의 서명운동본부는 오는 8월까지 20만 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목표로 전교

인의 서명 참여촉구 및 교구별, 교회학교별 서명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 1단계 전교인의 개인별 직접 서명, 제 2단계 교구별, 교회학교별 등 팀별 속의 서명운동, 제 3단계 유관단체 및 연교를 이용한 집단 서명운동 등 모두 3단계에 걸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발표된 서명본부 조직을 보면 위원장 정병무 장로, 본부장 김세재 집사, 총무 김재술 집사, 서기 이상태 집사이며 운영위원은 각 교구간사, 5개 교회학교(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및 청년부)의 부감과 학생회장, 이상호 집사, 이제홍·집사, 탁경준 집사, 김규태 집사, 이동만 집사, 양인수 집사, 최차순 집사, 장덕 집사, 조철기 집사, 김은수 집사, 조준택 집사, 이자혁 집사 등이 다. <관련기사 3면>

6월 학습·세례식

6월 학습·세례식이 23일(수) I·II부 예배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 교육은 13일(주일), 세례자 교육은 20일(주일)에 2층 예배실에서 각각 있다. 이에 미참하신 성도는 21일(월)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22일(화)에 있다.

김치동문회와 새 일꾼

한국교회갱신연구원(김치) 동문회 총회가 지난 달 17일(월)오후 5시 30분 강남YMCA 3층 그릴 및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 회장에 차정운 목사(벤엘교회)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 김상은(선민침례교회)·박정호(양떼교회)·박태정(세예루살렘교회)·손명철(대백중앙교회)·이만호(인천중현교회)·차명숙(헤브론교회) 목사, 총무 김철남(예담교회)·김진열(민족교회) 목사, 협동총무 박귀환 목사(서울교회), 서기 차장호 목사(주님의교회), 회계 임홍식 전도사(광림교회), 감사 박민영(십자성교회)·오강식(은진교회)목사가 임명됐다.

목회자세미나·서울성경대학 종강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6월 7일(월)에 종강한다.

3월 29일(월)에 시작하여 식목일인 4월 5일을 제외하고 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에 계속돼 온 이번 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제 1교사에는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지도자론을 다루기도 했다. 제 2교사에는 열 명의 외부 강사를 초청, 이번 학기 주제에 따른 특강의 기회를 가졌다.

한편 서울성경대학 강좌 중 야고보서 반, 고린도전서 반, 말라기 반과 음악교실은 지난 주간에 각각 종강했으며 느헤미야반은 10일(목)에 종강한다. 종강감사예배는 13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리게 된다.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0일(목) 오후 2시 여전도회관에서 비전2020실천운동 제 1차 실무교육을 수도권중심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모임에서 설교한다.
- * 노승성 장로(제 6교구)는 3일(목)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부문 우수상을 수상.
- * 조지윤·성도(12교구 조양빈·김혜영 집사 차녀, 최완 권사 외손녀)는 클린턴대통령으로부터 성적 및 봉사 우수자로 교육상 수상.
- * 이번 주 식사는 정희순 집사·전용순 권사 가정에서 제공.
- * 에스더 5·6전도회는 7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

■ 이사 ■

- * 이동만·이은자 집사, 성동구 행당동 한진아파트로 (☎ 2281 - 8766)

총회환경운동 십계

- ① 일회용품은 쓰지 맙시다.
- ②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③ 합성세제 삼갑시다.
- ④ 재활용품 사용합시다.
- ⑤ 오늘도 물과 전기를 아갑시다.
- ⑥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 ⑦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 ⑧ 소비광고에 한눈을 팔지 맙시다.
- ⑨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 구합시다.
- ⑩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합시다.

제 1회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기독교 환경상 공모

▶ 주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강남구 역삼동 751-15 송현빌딩 3층 ☎ 02) 538 - 9092)

▶ 공모부문: 개인 실천, 교회차단단체 실천, 표어, 기도문, 식사기도문, 설교문, 환경복음송, 사진

▶ 접수마감: 1999년 9월 30일

▶ 제출서류: 각 부문별 참여내용 3부, 응모자 자기소개서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의 승전을 위해
2.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난민청원운동을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